

미국의 세탁기 세이프가드 발동 및 아국기업 영향

- | | |
|--------------------------|---|
| 1. 세탁기 세이프가드 발동 내용 | 1 |
| 2. 세이프가드 발동에 따른 영향 | 2 |

작 성

선임연구원 이미혜 (3779-6656)
mihyelee@koreaexim.go.kr

1. 세탁기 세이프가드 발동 내용

□ 2018년 1월 22일, 미국무역대표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한 대형 가정용 세탁기¹⁾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표

- 완제품 및 부품에 대해 2018년 2월 7일부터 3년간 세이프가드가 발동되며 관세가 1%에서 최대 40~50%로 상승
 - 완제품은 120만대를 기준²⁾으로 1%대인 관세가 1년차에 20%, 2년차 18%, 3년차 16%로 상승하고 쿼터 초과시 1년차에 50%, 2년차 45%, 3년차 40%의 관세를 부과
 - 부품은 1년차 5만개, 2년차 7만개, 3년차 9만개를 기준으로 이를 초과시 완제품과 동일한 관세를 부과
- 세이프가드는 특정 수출국을 타겟으로 하지 않고 모든 수출국을 대상으로 적용
 - 다만,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체결국인 캐나다는 제외되나 미국 산업에 피해를 준 것으로 판단된 멕시코와 한미FTA 체결국인 한국은 포함됨
 - 국가간 쿼터 할당 방식은 아직 미정임

< 수입 세탁기 세이프가드 부과 내용 >

구분	완제품			부품		
	쿼터	쿼터내 관세	쿼터외 관세	쿼터	쿼터내 관세	쿼터외 관세
1년차	120만대	20%	50%	5만개	0%	50%
2년차		18%	45%	7만개		45%
3년차		16%	40%	9만개		40%

주 : 부품은 세탁기 캐비닛, 세탁통, 세탁바구니 등 주요 부품

출처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

1) 한국 기준 13~30kg

2) 미국의 세탁기 수입이 급증하기전인 2012~2014년 평균 수입 물량을 기준으로 산정

□ 정부는 양자협의 개최를 요청했으며 WTO에 한미세탁기 분쟁³⁾과 관련, 미국에 대한 양허정지 승인을 요청

- WTO가 양허정지를 승인할 경우 정부는 미국산 제품에 7,600억원의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음

2. 세이프가드 발동에 따른 영향

□ (현황) 미국 대형 가정용 세탁기 시장에서 국내기업의 시장점유율은 31%로 1위 사업자인 월풀의 시장점유율(38%)에 육박

- 삼성전자와 LG전자의 미국 대형 세탁기 판매량은 연 240만대 이상⁴⁾, 매출은 2016년 10.6억 달러 규모
 - 미국에서 판매되는 양사 세탁기 대부분은 제 3국에서 생산되며 국내 생산 비중은 약 10% (현지생산은 없음)
 - 삼성전자는 전량 해외생산(베트남, 태국 등)하며 LG전자는 미국 판매량의 약 20%는 국내 생산하고 나머지는 베트남, 태국 등에서 생산
- 한국의 직접적인 대미 수출액은 2016년 1.3억 달러

< 한국산 대형 세탁기 대미 수출 추이 >

(단위: 억 달러, 전년대비 %)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대미 수출액	5.1	2.8	1.4	0.8	1.3
증감	△14.8	△45.5	△49.1	△40.8	54.8
총 수출중 대미 수출 비중	45%	35%	23%	19%	30%

주 : 1) HS Code 845020(가정형 또는 세탁소형 세탁기로 세탁능력이 10kg를 초과)
 2) 한미 세탁기 분쟁으로 수출은 '12~'15년에 감소세가 지속되었으나 '16년 WTO 최종판정 결과 승소함

출처 : 한국무역협회 통계

3) 월풀은 2011년 미 상무부에 국내기업을 제소했고 2012년 8월 예비판정에서 반덤핑 및 상계관세가 부과됨. 2013년 한국은 WTO에 이를 제소했으며 2016년 반덤핑 관련 쟁점 전부 승소, 상계관세 관련 주요 쟁점에서 승소했으나 미국은 관세 철회 등 후속조치를 미이행

4) 삼성전자가 120~140만대, LG전자가 약 120만대 이상을 판매

□ (영향) 제품 가격이 약 20% 인상되면서 판매량 감소로 최대 가전시장인 미국에서 국내기업의 입지가 약화될 전망

- 관세가 최소 20%, 최대 50% 부과면서 가격인상과 중저가 제품 중심으로 판매량 감소가 불가피
 - 국내기업의 판매량은 240만대 이상이나 저율관세할당 기준은 120만대로 가격인상에 따라 판매량은 최대 50% 감소할 수 있음
 - 양사의 판매량 감소와 원가관리 강화로 부품 협력사들도 매출과 수익성이 영향을 받을 전망
- 국내생산 제품도 세이프가드 조치에 포함되면서 대미 수출도 감소

□ (대응방안) 기업들은 현지공장 조기 안정화와 프리미엄 시장⁵⁾ 공략 강화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전망

- 양사는 현지 생산기반을 구축하는 단계로 삼성전자는 2018년 1분기, LG전자는 2018년 하반기로 공장 완공 시점을 앞당길 계획
 - 양사는 2020년까지 각각 연 백만대를 생산할 계획이나 부품에도 관세가 부과되면서 생산원가는 상승
- 가격경쟁력에 민감하지 않은 대용량 프리미엄 시장 공략을 강화
 - 국내기업의 대용량 프리미엄 세탁기 시장점유율은 54.6%로 기술력의 차이를 인정받고 있으며 스마트가전으로 부가가치를 제고할 것으로 예상

< 미국 프리미엄 세탁기 시장점유율 >

LG전자	삼성전자	월플	GE	Maytag	기타	합계
29.2%	25.4%	11.9%	8.6%	8.3%	16.6%	100.0%

주 : 2016년 기준

출처 : Stevenson

5) 900달러 이상

□ 미국의 보호주의 움직임이 타 제품으로 확대되고 있어 정부와 기업의 다각적 대응방안 모색이 필요함

- 세이프가드는 2002년 이후 16년만에 처음 발동⁶⁾되었으며 미국 국제 무역위원회(ITC)는 철강, 반도체에 대한 조사를 진행중
 - 반도체 패키징 전문회사 Tessera는 삼성전자에 반도체 지적재산권 침해 문제로 ITC에 구제조치를 요청했으며 반도체 회사 비트마이크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레노버 등이 자사 SSD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

6) 2002년 부시 행정부는 수입 철강제품에 세이프가드를 발동한 후 적용된 사례가 없었음

※ 참고 1: 미국의 세탁기 세이프가드 발동 경과

시기	주요 내용
2017/5/31	월풀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수입 세탁기에 세이프가드 조치를 청원 (관세: 1%→ 40%)
2017/10/5	ITC는 수입 세탁기로 자국 산업피해를 판정
2017/10/19	ITC는 제재조치 방법, 수준을 논의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
2017/11/21	ITC의 구제조치 판정
2017/12/4	ITC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서를 제출
2018/1/22	수입 세탁기 세이프가드 조치 발표

※ 참고 2: 주요 국가별 대미 냉장고 수출액

(단위: 백만 달러)

		2014	2015	2016	2017. 1~8
	전세계	1,484	1,618	1,662	1,123
1	베트남	0.3	0.8	167	370
2	태국	18	15	134	214
3	멕시코	283	273	278	181
4	한국	161	99	159	151
5	중국	870	1,078	761	87

주 : 1) HS코드 8450(가정형 또는 세탁소형의 세탁기) 기준
 2)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생산거점을 2016년 중국에서 베트남, 태국으로 이전하여 중국의 수출이 감소하고 베트남, 태국 수출이 증가함

출처 : Global Trade Atlas

※ 참고 3 : ITC의 무역구제 조치

구제조치	내용
반덤핑	덤핑행위를 방지하는 구제 조치
상계관세	정부보조금을 수령하는 수입품 방어
세이프가드	자국 산업에 피해주는 제품 수입 제한
지적재산권 보호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제품의 수입 금지